



천지의 선물

유곡중 3-7 강우희

태초의 세상은 무한한 어둠만이 존재했다.

이는 잠시, 눈부신 빛이 어둠을 밝혔다.

이윽고, 빛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새파란 기운을 머금고

날아올라 광활한 하늘이 되었다.

다른 하얀 붉은 기운을 둘러매고

낙하하여 생명의 땅이 되었다.

마지막 빛은 그들 사이에서

새하얀 기운을 담아 인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은 인간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의 기를 줄 테니

대신 그 기를 담은 그릇을 만들라고

하지만 그 어느 인간도 이를 만들 수 없었다.



그때였다.

겨레 중 한 명이 붓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은 ‘.’

땅의 기운을 담은 ‘ㅡ’

마지막으로 겨레의 기백을 담은 ‘ㅣ’라는 그릇을

천지는 기뻐하며 서로 어우러졌다.

그 후, 겨레에게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

‘천지인’이 한테 영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그 겨레는 ‘**한민정음**’이라 불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작지만 큰 선물

‘한글’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한민정음의 뒤를 이은 한글이 천지의 선물임은 달라지지 않는다.